

‘2015전주세계소리축제’

신명나는 판 즐겨보세

7일부터 나흘간 ... 개막작 ‘판소리 빅 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

세계인의 음악축제인 ‘2015전주세계소리축제’가 7일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흥보가’를 주제로 전북의 예술인 160여명이 참여하는 개막작 ‘판소리 빅 파티’로 문을 연다.

올해는 특히 개·폐막작을 비롯한 단돈 ‘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대형 야외공연이 축제 기간인 7일부터 11일까지 펼쳐지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농악 공연, 두 가지 음악을 비교해 듣는 ‘더블 무대’ 등 수준 높은 공연 등도 선보인다.

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공연 수를 지난해보다 40여회 줄이는 대신 밀도 높은 공연을 선보여 소리축제만의 특징을 살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소리축제 첫날인 7일 개막작 ‘판소리 빅 파티’는 객석까지 이어지는 무대를 만들어 관객과 예술인이 100분 동안 어우러지는 ‘판소리 카니발’로 진행된다. 둘째 날인 8일과 10일에는 전북대와 단국대가 참여하는 ‘대학 창극’이 열린다. 창극의 맥을 잇는 대학생들만의 참신한 방식으로 ‘형이와 삼동아’, ‘배비장전’을 선보인다. 10

일에는 황병기 가야금 명인과 사토 마사히코 피아노 명인 등이 한 무대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색 공연도 준비돼 있다.

같은 날 나라극악관현악단은 우리 문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고(故) 최명희 작가의 장편소설 ‘혼불’을 대서사음악극으로 재구성한다.

관객들은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사랑, 애환을 그린 문학 작품이 음악으로 재탄생하는 멋진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K 포크 빅파티’에서는 국내 포크 음악의 대명사 송창식, 양희은, 장필순 등 세 싱어송라이터가 빛나는 선율의 조화가 그윽한 가을 정취를 전한다.

현장에 올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소리축제를 즐길 수 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생방송서비스 사이트(www.soritv.kr)나 소리축제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에 접속하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과 놀이마당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이 주요 공연장에서 리포터하는 방식으로 안방까지 현장감



을 전달할 예정이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양하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대에서는 세계공연예술제, 세계거리음악, 체험 및 만들기 마당이 관객들의 입과 눈을 사로잡는다.

소리축제는 11일 전국 8개 품목·연희단 150여명이 파티형 농악 공연을 펼치는 폐막작 ‘농악 빅파티’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지난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농

악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낼 예정이다.

박재전 집행위원장은 “폐막공연과 광대의 노래 모두 농악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농악’을 집대성하는 기념비적인 대규모 공연을 현장에서 볼 기회를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전남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단 발족

복지 관련 전문가 50명 구성

문제점 보완·정책대안 마련

전남지역 사회보장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게 될 전남복지재단(이사장 노진영)의 ‘전남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단’이 최근 발족했다. 모니터링단은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민간 복지 기관장, 관련 공직자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4일 전남복지재단에 따르면 ‘전남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사회보장 각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사회보장 전 분야의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상호 의견 교류 등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남사회보장 모니터링단은 현장모니터링단과 전남사회보장 TF팀, 모니

터링 결과 심의위원회로 구성되며, 단원 임기는 오는 2016년 12월 말까지다.

전남사회보장 TF팀은 현장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며, 공공부조TF팀과 복지서비스TF팀으로 나눠 운영한다. 각 TF팀은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제출된 활동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 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단, 전남남도, TF위원, 학계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활동보고서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하고, 근거자료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승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국민 삶의 질 향상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등은 물론 고용, 주거, 문화, 교육에 포함한 광의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을 토대로 복지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전주시, (주)전주주조와 상표권 계약 해지

원산지 표시 위반

전북 전주시는 “원산지를 위반해 술을 만든 (주)전주주조와 상표권 계약을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모주와 막걸리를 생산하는 전주주조가 수입 쌀로 이들 제품을 만들다가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는 또 전주주조에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앞으로 ‘전주모주’ 상표를 부착하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전통모주에 대한 상표특허를 개발한 전주시는 2012년 전주주조가 10년간 ‘전주모주’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국내산 재료 수급이 쉽지 않을 때에는 미리 전주시와 협의해 생산한다’는 계약 규정을 어기고 값싼 수입쌀로 술을 만들다가 적발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주조는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9~2011년 총 30억 원(국비 15억, 도·시비 5억, 자부담 10억)을 들여 모주 제조시설을 갖췄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비자를 배신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한 것”이라며 “국내산 재료로 모주를 만드는 전통주 생산업체가 ‘전주모주’ 상표의 사용을 요청하면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knews@

전남공공산후조리원 해남병원내 개원

150평 규모 ... 에어샤워부스 등 최신 설비

다문화·기초수급자 이용료 감면 혜택도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이 이날인 전남지사,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강성주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박철환 해남군수,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병원에서 열렸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병원 내에 496㎡(150평) 규모로 10실의 산모실과 신생아실을 비롯해 물리치리실, 편백침실방, 피부관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신생아 감염관리를 위해 모자가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생아 외부 접촉차단과 출입구 에어샤워부스, 신생아실 공기멸균기, 소독용품 등 최신설비를 갖췄다.

또 해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력을 받아 다문화 가정 산모를 위한 통역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다문화 가정, 중증장애인 산모 등은 이용료의 70%에 해당하는 107만8000원을 감면받는다. 산후조리원 예약은 출산 40일전부터 가능하다.

현재 38명의 출산 예정 산모가 예약을 마치고 출산을 기다리고 있으며, 구례, 완도, 강진 등 전남지역 산모들의 이용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날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원하게 돼서 기쁘다”며 “개원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내 각지의 산모들이 선호하고 있어 향후 2호점, 3호점을 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북 정읍시 시기동 도심내에 방치돼 있던 빈집(사진 왼쪽)이 철거된 자리에 주차장(오른쪽)이 새롭게 조성됐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도심 빈집 정비사업 추진

주차장 확보·범죄예방 효과

정읍시가 도심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은 물론 주차장 확보와 범죄예방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4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4000만원을 투입해 시기동과 장명동 빈집 4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다만 빈집 정비 대상은 건축주가 해당 용지를 5년간 시민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수용한 곳으로 한정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을 비롯한 일부 붕괴가

진행됐거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스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빈집 등을 집중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는 빈집 방치에 따른 우범화와 안전사고 발생,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읍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와 주차장 확보를 동시에 진행한 결과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내년부터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물 전망양호 매3억 8천만원 2.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주택3동 교통편리 매7억원 3.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2,187㎡ 주택96㎡ 공장75㎡ 점포26㎡ 매2억4천만원 4.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주유소 상가, 식당, 카페용 최적지(신주공/구청)매 5억9천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장성읍 리모델링한 무인텔 대지 약 600㎡, 건물 835㎡, 객실 24개 대충3억 계약조건은 조정할 5억3천 •화순 동면 관리지역 임야 62608㎡, 요양시설 등 적합, 대출 6억4천 도로여건 좋음 교환도 가능 9억 •광안구 승정동 원룸 건물 대지 493㎡, 건평 700㎡, 방 27개 감정 6억이상, 대출 2억2천, 전세 1억8천 매도 5억3천 •충장로5가 대지 126㎡, 건평 419㎡, 공사지역 매도 2억5천 •금남로4가 대로변 대지 317㎡, 건평 1235㎡ 은행 4억3천 임대 1억에 월600에 임대 중 공실 있음 14억5천, 투자 가치 좋음 •광안구 월계동 APT상가총 지하 945㎡, 시설좋은 목욕탕 감정 9억6백 은행 4억9천 교환도 가능 7억천 •무안군 망운면 옥지에서 650㎡ 떨어진 독립설 별장, 전원주택지, 요양시설 등 적합, 공사가 2억6천 감정 5억3천전 매도 3억6천 •전원주택지 나주시 다도면 혁신도시 인근 산 13968㎡ 은행3억 매도3천

(주)전국부동산경매연구소 법인등록번호 200111-0181150 법인사업자번호 650-81-00051 (회사 설립일 : 2003년 8월 26일) 모 집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정년· 명예퇴직 하신 분 ▲ 법원 경매에 관심있는 주부 ▲ 자유롭게 출근하면서 법원 경매를 배우실 분 (무료) ▲ 수익성 있는 법원경매 물건을 당사와 함께 공동 투자하여 투자금 비율로 이익금에서 분배를 원하시는 분 ▲ 본인이 직접 법원경매 물건 취득을 원하시는 분 사업의 종류 ● 부동산 중개업 (매매/임대) ●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 알선업 ● 경·공매 부동산 명도 용역업 ● 주택 건설업 ● 경락잔금 알선업 방문 및 상담 ☎ 062-449-2552 / 010-3441-1308 (주/야) 062-449-2552@hanmail.net (이메일 접수 가능)

개인병원부지 1. 상업지역 108평 2. 사통팔달 교통요지 3. 터미널부지 내 4. 인구증급 예상지 부동산재테크 연구소장 이은진 추천물건 법원경매매정보 전국무료사이트 투데이옥션 1899-9071 하프옥션 공정 감정가대비 30%-70%